

**서울시, 자연녹지에 레미콘공장 허용**  
(2005. 7. 15)

앞으로 서울시내 레미콘이나 아스콘공장도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 이전할 경우 자연녹지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확정, 오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이전을 해야 하는 레미콘공장과 아스콘공장을 자연녹지지역 안에 세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특별시·광역시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자연녹지지역 및 공항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강서구 외발산동으로 이전을 추진해 온 성수동일대 레미콘 공장들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시는 또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세감면조례를 개정, 전용면적 60㎡(18평) 초과 149㎡(45평) 이하 장기임대 공동임대주택도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초과 85㎡(25평) 이하의 취득·등록세의 50%, 85㎡ 초과 149㎡ 이하는 25%가 각각 경감된다. 그동안에는 6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취득·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밖에 시는 혼잡통행료 징수조례를 개정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지역인 '교통 혼잡지역'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바꾸고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이를 고시하도록 명문화했다.

**매출 다각화 나섰다,**  
**시멘트업계 건자재 증대, 신사업 진출**  
(2005. 7. 20)

시멘트업계가 불확실한 미래 경영환경에 대비하

기 위해 매출 다각화로 체질개선에 나섰다. 매출의 대부분을 의지하던 시멘트 부문에서 탈피해 건자재 품목 매출 비중을 늘리거나 비시멘트업종으로 신사업에 진출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한일시멘트는 전체 매출 가운데 시멘트 2차제품 비중을 50% 이상 끌어올려 '종합건자재그룹'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이외에 레미탈, 레미콘, 고강도 혼화재 등의 매출비중이 50%에 가깝다. 지난해 전체 6,006억원의 매출중 국내 최초로 선보인 드라이몰탈 '레미탈'이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며, 특수몰탈도 2010년까지 전체 매출액의 1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현대시멘트도 주력인 시멘트 외에 레저사업을 더욱 보강해 레저 매출비중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현대시멘트의 레저사업 부문인 현대성우리조트는 기존 스키와 콘도사업을 통해 지난해 367억원대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현대시멘트의 지난해 전체 매출 3,952억원의 10%에 약간 못미친다. 그러나 오는 2008년 오픈 예정으로 공사중인 36홀규모 골프장이 완공되면 레저사업 부문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성신양회도 정보기술(IT)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인수합병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신양회는 올 상반기 인수한 바이오회사 셀론텍과 공기주입장치 생산업체 한국터보기계 영향으로 전체 매출이 5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5,792억원 이외에 신규사업 부문에서 500억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다. 성신양회 관계자는 "기존 시멘트와 레미콘 사업에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운용에 중점을 두고 여유자금을 비시멘트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직원과 함께 땀 흘린다"**  
**라파즈 그룹 CEO 현장경영**  
(2005. 7. 25)

세계적 종합 건축자재 업체인 라파즈 그룹의 국내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스킨십’ 경영으로 현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에 진출한 라파즈 계열사는 라파즈한라시멘트(대표 게르하르트 뢰저)와 라파즈석고보드(대표 필립 베리로) 2개 사다. 라파즈한라시멘트 게르하르트 뢰저 대표는 지난 15일 충북 충주 수안보에서 개최된 경영설명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경영설명회 투어에 돌입했다. 그는 경영설명회에서 전국의 영업 책임자 및 현장 담당자들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영업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후에도 서울, 전남 광양, 강원 강릉 등을 추가로 돌며 총 6회에 걸쳐 경영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라파즈석고보드 필립 베리로 대표도 ‘공장투어’를 통해 임직원간에 신뢰감을 쌓고 있다. 공장투어는 단순히 사업장을 둘러보는 개념이 아니라 대표가 직접 직원들과 땀을 흘리며 현장체험을 하는 방식이다. 라파즈 관계자는 “경영설명회와 공장투어가 CEO와 직원간의 허물없는 대화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대표들이 헌신적으로 회사 발전에 나서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한국 진출 이후 현재까지 안정적인 노사협력문화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일, “레미탈, 전국권 시멘트로 육성”

(2005. 7. 27)

한일시멘트의 광주영업소는 지난해 오피스텔이나 빌딩안이 아닌 시내 대로변에 사무실을 열었다. 사무실도接客 매장처럼 꾸며 이동통신이나 가전제품 대리점을 연상하게 만든다. 일반 시민보다 건설현장에 친숙한 시멘트기업으로선 새로운 시도다. 이는 호남지역에 아직 낯선 ‘레미탈’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회사의 홍보전략이다. 레미탈은 시멘트와 모래가 섞여 있어 물만 부어 사용할 수 있는 즉석시멘트다. 업계에선 ‘드라이 몰탈’라고 부른다. 한일시멘트가 전남 목포 대불공단에 레미탈 공장을 짓고 영업을 강화하는 등 호남권 공략에 본격 나섰다. 수도권과 중부지역, 영남권을 평정하고 호남권에서도 ‘즉석시

멘트’ 바람을 일으켜 전국권 시멘트의 면모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즉석시멘트를 원하는 장소에 제때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장 인근에서 영업을 해야 한다. 시멘트 3배 분량의 모래와 시멘트가 섞여 부피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제품 특성상 물류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일시멘트는 호남 공략을 위해 전남 목포 대불공단에 연산 100만톤 규모 레미탈 공장을 이르면 연내 완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인천공장) 중부권(조치원공장) 영남권(김해·함안공장)에 이어 전국을 커버하게 된다. 회사의 레미탈 생산능력도 연산 320만톤에 420만톤으로 늘어난다. 기존 시멘트를 사용한 공사에 비해 품질이 좋은데다 대규모 기계화 시공을 통해 공기를 단축하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 레미탈은 매년 10% 이상씩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11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회사의 효자품목. ‘레미탈’은 관련시장 점유율이 70%가 넘고 있으며, 제품 종류만도 100여종에 이른다. 건축현장에서는 마치 보통명사처럼 불리울 정도로 높은 브랜드파워를 갖고 있다.

### 중국산 저질건자재 활개,

비규격 철근·시멘트, 국산으로 둔갑

(2005. 7. 29)

중국산 저가·저질·유사 건자재가 국내 시장에 범람하고 있다. 심지어는 중국내 생산금지된 품목까지 무차별적으로 반입되고 있다. 이들 중국산은 국산품 가격의 50% 수준이다. 대부분 중소형 업체들이 선호하고 있어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다. 중국산 철근은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해 지난 4월에는 한달에만 9만톤이 국내로 유입됐다. 5~6월에도 월평균 5만톤 이상 수입되면서 국내 철근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중국산 철근은 국산에 비해 경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톤당 4만~5만원 정도 싼 편이다. 그러다보니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가 하면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이 시중에 버젓

이 판매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산 제품은 성분이나 기계적 품질 등을 기록한 검사증이 발급되지만 중국산의 경우 제품을 증명할 수 있는 보증서가 없다”면서 “중국산은 제품 품질에 대한 보증을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때문에 중국산 철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히고 있다. 시멘트도 저질 제품이 유입되고 있다. 국산의 경우 엄격한 품질 기준을 적용하는 미국에 수출할 만큼 선진국 반열에 있는 반면 중국산 시멘트는 강도 등 품질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중국산 수입시멘트 규모는 지난 2000년 61만톤 수준에서 2001년 91만톤, 2002년 86만톤, 2003년 98만톤까지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지난해는 무려 220만톤을 기록해 국내 시멘트 시장 4.0%를 잠식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건재자의 국내 공세에 대해 국내 정품에 비해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시공 후 AS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 상반기 시멘트 생산량 7.4% 증가**  
(2005. 8. 2)

중국의 올해 상반기 시멘트 생산량이 전년동기대비 7.4% 증가했다고 중국 경제망이 차이나데일리를 인용, 2일 보도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올해 첫 6개월간 중국의 시멘트 생산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4% 늘어난 4억 5,600만톤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중국 시멘트 업체들의 올해 상반기 생산액은 1,221억위안(미화 147억달러)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의 올해 상반기 시멘트 생산량 증가율은 전년동기 증가율에 비해 10% 포인트 낮은 것이다.

**2010년 일본 건설투자, 51조엔**  
(2005. 8. 16)

오는 2010년 일본의 건설투자는 50조엔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건설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건설투자·유지보수 중장기 예측에 따르면 2010년의 건설투자는 46조 6,000억엔~51조 2,000억엔, 2020년도는 39조 7,000억엔~51조 1,000억엔으로 지난 2003년의 55조 2,000억엔을 밑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건설투자는 2010년도, 2020년 모두 15조 3,000억엔~18조 5,000억엔으로 피크였던 지난 1995년의 35조 2,000억엔에 비해 거의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유지보수는 고도 경제성장기에 건설된 사회자본과 민간 건축물이 보수시기를 맞기 때문에 2003년의 22조 4,000억엔을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중장기 예측은 2006~2010년의 실질 GDP(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1.5%로 설정했고 2011~2020년은 성장률을 2.5~1.0%의 4개의 케이스로 나누어 실시했다. 2011~2020년도의 GDP 성장률을 최대 2.5%로 설정한 케이스 1의 경우 2010년의 건설투자는 2003년에 비해, 2010년도는 12.9~7.1% 감소하고 2020년에는 13.1~7.4% 감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유지보수는 2003년에 비해 2010년은 8.1~8.7%, 2020년은 25.3~26.9%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장률을 최저인 1.0%로 설정한 케이스 4의 경우, 2010년의 건설투자는 2003년 대비 15.5~9.8%, 2020년은 28.1~22.3% 각각 감소하며 유지보수는 2010년도가 7.0~7.7%, 2020년도가 20.2~21.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 건설투자에 대해서는 2005년의 투자액이 2006년까지 유지돼 2020년까지 횡보추이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주택 투자는 가구수의 감소에 따라 착공 건수나 증개축 등이 감소하며 투자액도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도의 18조 4,000억엔에 비해 2010년은 17조 6,000억엔~17조 7,000억엔, 2020년은 13조 1,000억엔~14조 2,000억엔으로 예측하고 있다.

**건교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2005. 8. 25)

건설교통부는 폐콘크리트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

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제정,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품질기준은 콘크리트공사에 사용되는 모래·자갈을 비롯해 도로공사의 보조기층 등 12개의 재활용 용도에 대한 품질기준과 시험 및 사용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도로건설 때 쓰이는 기층용 골재의 경우 입도 조정 기층용은 유기 이물질 함유량을 용적기준 1.0% 이하로, 무기 이물질은 질량을 기준으로 5.0% 이하로 하도록 했다. 골재 최대치수는 50mm 이하로 규정했다.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과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 노상의 순환골재 품질기준은 잔골재와 굵은골재 모두 건설폐자재 도로포장지침과 같게 소성지수, 안정성, 흡수율, 마모감량, 이물질 함유량 등을 명시했다. 콘크리트용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와 대체로 같은 내용으로 제정됐으나 입자모양 판정실적률을 굵은골재는 55% 이상, 잔골재는 53% 이상으로 하고 알칼리 골재반응을 무해하도록 하는 등 일부 항목을 다르게 적용했다.

### 시멘트업계 '첨단경영 시대'

성신양회·한일 등 정보인프라 시스템 구축  
(2005. 8. 31)

시멘트업계가 첨단 경영관리 기법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기업의 정보경쟁력 제고를 위해 온라인 프로세스 혁신·통합 지식경영시스템 도입 등 종합적인 정보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성신양회는 10월 1일부터 '통합 경영정보시스템(MIS)'을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성신양회가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진행해온 프로세스 혁신(PI)과 정보업무개선(ITPR), 변화관리(CM) 등 IT 혁신 작업의 일환이다. 성신양회는 MIS 가동 이후에도 매년 지속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통해 5년내 업계 최고 정보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일시멘트는 기존 경영정보시스템을 외부 협력사와 온라인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체제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00년 사내 그룹웨어를 구축하고 2002년도 경영정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한 바 있는 한일시멘트는 기존 사내 경영정보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을 보강중이라고 회사측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별도 도로 추진중인 보안시스템도 오픈단계에 와있다고 덧붙였다.

### 8. 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2005. 8. 31)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이주성 국세청장, 윤중현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연간 900만평씩 총 4,500만평을 개발, 150만가구를 건설하고 이 가운데 41만 5,000가구를 중대형 아파트로 짓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3,000만평의 택지 외에 육군종합행정학교 95만평, 특전사 65만평, 체육부대 12만평, 군부대 골프장 28만평 등을 합쳐 200만평의 송파 거여지구를 새로 개발하고 현재 추진중인 김포, 양주 옥정 등 4~5개 신도시에서 공공택지 1,000만평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내 중대형 아파트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 건설비중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해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주공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해 분양·임대하는 주택공영개발 방식을 확대하고 이들 택지에서는 국민임대주택과는 별도로 공급물량의 30% 수준에서 임대물량 비중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내년부터 25%의 부과율로 개발부담금을 재부과하고 신규주택, 상가 등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기준시가

를 기준으로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세율을 6억원 초과~9억원의 경우 1.0%, 9억원 초과~20억원은 1.5%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오는 2007년부터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동시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배제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의 대출금리를 최대 1.0% 포인트 내리고 무주택자의 비투기지역내 25.7평 이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모기지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 동양, 고온가스 재활용 일석이조 (2005. 9. 1)

동양시멘트(주) 삼척공장이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가스를 이용해 전력을 자체 생산하면서 연간 50억원 이상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삼척공장에 따르면 고온의 가스를 폐열회수보일러의 열원으로 사용해 고온 고압의 증기를 생산한 뒤 이를 증기터빈발전기에 공급,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게 됐다. 사업비 229억원을 들여 지난 2002년 7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8월부터 가동한 폐열회수발전소는 19.7MWh의 전력을 생산해 연간 13만MWh의 전력을 자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회사측은 이 폐열회수발전소 가동으로 연간 50억원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4년이 경과되면 투자비를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폐열회수발전소 가동에 따라 화력발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지구온난화 물질인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 지구환경 보전에도 기여하는 친환경시스템으로 평가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1979년 중동의 오일쇼크 당시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던 bunker C유 대신 유연탄을 연료로 대체한 경험을 바탕으로 폐열회수발전소 가동으로 석유 1배럴당 60달러를 육박하는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절약 및 생산원가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쌍용, 11월 워크아웃 졸업 (2005. 9. 2)

시멘트 업계 1위 회사인 쌍용양회가 11월 채권단 공동관리에서 벗어난다.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은 2일 쌍용양회가 채권단 공동관리 졸업 요건을 충족시켜 11월 30일자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서 졸업하게 된다고 밝혔다. 조흥은행과 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으로 구성된 쌍용양회 채권단은 이날 서면 결의를 통해 쌍용양회의 워크아웃 조기 졸업을 결정했다. 채권단은 쌍용양회 워크아웃 졸업과 동시에 '출자전환 주식 매각협의회'를 구성해 매각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쌍용양회 지분 46%를 갖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쌍용양회 2대 주주(지분 23%)인 일본 다이헤이요(太平洋)시멘트에 우선적으로 지분 매수 기회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일본, 시멘트 수요 호조세 (2005. 9. 12)

일본의 시멘트 수요가 민간 건축 경기의 활성화와 지난해 빈발했던 자연재해 복구 공사에 힘입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일본시멘트 협회가 집계한 7월 한 달 동안의 시멘트 국내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6% 감소한 483만 1,161톤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수는 5개월만에 감소한 것이지만 출하일이 줄고 비오는 날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수요는 늘어난 것이라고 시멘트협회는 설명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지난해 발생했던 태풍에 대한 피해 복구 공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복구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약 150만톤으로 이중에서 100만톤 정도가 연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수요를 바탕으로 지난 3월의 내수 판매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8% 증가한 이후 4월 5.4%, 5월 7.4%, 6월 6.7%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생산도 4월에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7월까지 4

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다. 일본 시멘트업계는 재해 복구 공사의 발주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국토교통성의 국내 수요예측에 따르면 건축 착공이나 토목공사가 호조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연말까지 7%선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재고는 7월에 8개월 연속 400만톤대로 하락하고 있어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멘트는 가을철 성수기를 지나야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는데 올해의 경우 재고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11월쯤에는 수급이 타이트해질 것으로 일본 시멘트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시멘트의 국내 수요는 1990년의 8,629만톤을 정점으로 감소를 지속해 2004년도는 피크 때의 3분의 2에 불과한 5,757만톤까지 감소했다. 올해는 5,600만톤의 물량이 내수용으로 공급될 것으로 관련업계는 예상했다.

## 골재 공급물량 넘친다

(2005. 9. 19)

이달안으로 태안 연안에서 930만 $m^3$ ,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250만 $m^3$ 의 골재 채취가 허가되면서 골재 공급 과잉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점·사용료가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오른 상황에서 골재 공급이 지속적으로 넘칠 경우 가격 하락으로 인해 골재업체의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9일 건설교통부와 태안군에 따르면 신창마린 등 5개 컨소시엄은 지난 6월 어청도 인근 EEZ에서 100만 $m^3$ 씩의 모래 채취 허가를 신청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해양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50만 $m^3$ 씩만 허가하고 나머지는 사후영향평가를 거친 뒤 추후 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최근 이같은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신청량 나머지만 50만 $m^3$ 씩을 5개 컨소시엄에 허가해 주기로 하고 이들 업체에 허가 신청을 할 것을 통보, 9월안으로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 태안군도 올해 계획 물량 중 930만 $m^3$ 를 허가키로 했는데 지역별로는 인천에 200만 $m^3$ , 경기도에 200만

$m^3$ , 충남에 350만 $m^3$ , 제주에 120만 $m^3$ , 전북에 60만 $m^3$ 씩을 배정했다. 지난해의 경우 태안군 연안에서는 모두 27개 업체가 골재 채취 허가를 받았으며 올해는 29개 업체가 이 지역 골재 채취 허가신청을 해놓고 있다. 골재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골재 파동으로 인해 산림골재업체들이 설비를 경쟁적으로 확장했고 이로 인해 석산은 물론 바닷모래 업체도 많은 재고를 갖고 있다”며 “이번 허가로 골재 공급 과잉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레미콘 공장은 '늘고', 수요는 '줄어'

(2005. 9. 20)

건설경기 부진으로 레미콘 수요가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공장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산업체간 판매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말까지 전국 공장에서 출하된 레미콘은 6,740만 3,000 $m^3$ 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9%나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오창신도시 등 개발수요가 활발한 충북만이 18.6% 늘어났을 뿐 전지역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천안을 비롯해 아산 등 개발사업이 한창인 충남과 전북이 약보합세를 보였고 나머지 지역은 10% 이상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에 비해 전국의 레미콘 공장 수는 지난 6월말 현재 682개 업체 836개 공장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8%(19개사), 3.0%(25개 공장) 증가했다. 업체와 공장 수는 울산울산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남의 경우 레미콘 출하량이 25%나 줄었음에도 9개 업체 9개 공장이 늘어났으며 강원지역도 수요가 23.5% 감소했으나 업체 및 공장수는 각각 3개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 수가 늘어나 업체간 판매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미 일부 지역의 경우 시장질서가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